中日 갈등 '日지지' 언급 없는 트럼프…불안·경계 확산

日언론 "다카이치, '대만 문제' 입장 전했지만 트럼프 진의 몰라"

"中, 日보다 먼저 트럼프와 통화 분단 노려…日압박 강화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에 일본 내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25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도 대만 문제를 협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 중일 대립 관계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내용을 소개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 통화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 통화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형태가 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우려를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를 원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읽지 못해 그의 대응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순 미국과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태평양을 동서로 분할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이라고 해설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일본이 근심과 경계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이 신문은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이 한 달 만에 통화한 것과 관련해 "시진핑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얻고 (미국이) 중일 대립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비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 중국에 함께 대항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통일도 한층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중국은 미국이라는 후원자가 없는 일본에 위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희토류 수출 규제, 사증(비자) 면제 정지 등의 조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드론 루마니아 한복판 침범…나토 전투기 급파

즉각 F-16 출격해 대응

접경지 3곳 주민 대피령

몰도바 경찰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이후 몰도바 북부 쿠후레스티 데 조스 마을의 한 주택 지붕 위에 드론이 있는 모습을 공개 했다. /AP=연합뉴스

러시아 드론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을 건너 루마니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8분, 7시50분에 각각 러시아 비무장 무인기 두 대가 연달아 루마니아 영공으로 침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즉각 독일 타이푼, 루마니아 F-16 등 나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드론 중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한 대는 비행을 계속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2㎞ 떨어진 루마니아 내륙까지 날아간 뒤 추락했다.

이 여파로 루마니아 접경지 3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번째이며, 낮 시간대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로도 이날 밤사이 러시아 드론 6대가 침범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안을 협상하던 와중에도 25일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 벌어졌다.

이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연합뉴스

19세기 태어난 美 샌디에이고 명물 거북이 141살로 안락사

美대통령 임기 20번 넘게 지켜본 거북

19세기에 태어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명물' 거북이(사진)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NPR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땅거북 '그래마'가 고령에 따른 뼈 질환을 앓은 끝에 안락사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래마는 미국 제21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84년 갈라파고스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까지 지내던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개장하기도 전이다.

당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로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이다.

이후 그래마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미국 대통령 임기를 20번 넘게 지켜봤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1809-1882) 역시 그래마와 인연이 없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그래마의 부모 세대쯤 되는 거북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래마는 갈라파고스섬에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으로 옮겨진 후 40살을 넘긴 1928년께 샌디에이고로 와서 한 세기에 걸친 긴 여생을 보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왕할머니' 격인 그래마는 다정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동물원의 '여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름 그래마(Grama) 역시 '할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동물원 측은 "그래마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키가 1.8m(6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80kg에 달하는 장수 동물이다. /연합뉴스

독일 지난해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악몽…경비 강화

베를린 입구 통제·카메라 설치

독일에서 연말연시 관광객이 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야외 장터) 개장을 앞두고 올해는 특히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독일을 공포에 빠트렸던 차량 돌진 테러의 악몽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준비 중인 도시 곳곳에서 올해는 경비 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독일 내무부는 곳곳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 도심 집중, 야외 개방 등으로 특별한 위험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수도 베를린의 마켓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입구 검문소와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으며, 경비 인력도 증원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방문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한 방문객은 입구 차단 장치를 보고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해 특히 불안감이 번지는 것은 1년 전 크리스마스 마켓을 덮쳤던 차량 돌진 테러의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0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인파 속으로 차량이 돌진하면서 6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